

★ 매금요일
一九五七年五月十七日
제-〇〇二十七호

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MAY 14, 1944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7.
Honolulu, Hawaii
Add: 931 N. King St.

【보국단·타이발·에이페】
미동주의 유태하는 이로반의
선거의 소리를 듣자 박근구
회에 며칠이되어 다시 「나는
기당선무부(國務部)의 제2
로하스 피니(李寅士)」로
제정·설립되는 미동주의 적
과의 반란을 저지하고자
온을 아첨·거시·반대·통제·
려고 팬자 「카-로한(高麗)
을 후려 「국민의 대안」로
여 바우승(朴宇昇)하여 「국민」의
폐행할을 가져온다.
폐행할을 「국사(國事)」라고 말
하고 「대통령의 직권」을
「가리키(驅使)」로 표방하는
장정 이하 「포대(砲臺)」의 육회하고
군자(君子)로 표방하는 「군사(君子)」
에 이로 한계성을 며칠이 허
하여는데 이 바우승을 들
기위해 판사 암교 광장에
코인 수천원의 구경증을
다이어 와서 고제
교하며 설로 쓰러져온 이들
의 베데 「지사(地主)」 사람
중 좋은 사람이 적었노
히 소식되거나이다

三十 면이 이상이다
— 주인간
군대와의 충돌로 주인은 사
라를 힘껏 하여 허성자와의 수
호는 빙(三十 면) 이상이다

파룬주의 일손에
소련 최고회의에
「ホール시조호」로奔
[보스코바 7일 밤에 이·파
— 「홀시조호」 제—서기
는 오늘 소진된 소련 최고
회의 제—소련 소련 겨자
화로 전자 위기 쟈 카
한 철학자 한 겨자 저 편
성계 험을 치우, 시민사 할
필로가 이사하고 력 설하여 았
다.
「홀시조호」 서기장의
겨자 저 편서 아흔 소련
정의의 관리의 중심을
중주으로부터 지방으로
증오기는 거슬로 한
거사이다.
문제 의로분
[보스코바 7일 밤에 이·파
— 「홀시조호」 제—서기
는 오늘 소진된 소련 최고
회의 제—소련 소련 겨자
화로 전자 위기 쟈 카
한 철학자 한 겨자 저 편
성계 험을 치우, 시민사 할
필로가 이사하고 력 설하여 았
다.
「홀시조호」 서기장의
겨자 저 편서 아흔 소련
정의의 관리의 중심을
중주으로부터 지방으로
증오기는 거슬로 한
거사이다.
문제 의로분
[보스코바 7일 밤에 이·파
— 「홀시조호」 제—서기
는 오늘 소진된 소련 최고
회의 제—소련 소련 겨자
화로 전자 위기 쟈 카
한 철학자 한 겨자 저 편
성계 험을 치우, 시민사 할
필로가 이사하고 력 설하여 았
다.
「홀시조호」 서기장의
겨자 저 편서 아흔 소련
정의의 관리의 중심을
중주으로부터 지방으로
증오기는 거슬로 한
거사이다.

포털들도 에 대폭 노동 고시자체인권에 고부에서 바란다.
보는 데 있어 이다. 또
이미 대안에 도착하여 대안 지주에 대해서 고표를
보는 데 있어 이다. 또
한국주에도 가능하 유도한 부대의 이는
한국주의 지주 면역성이 있다
스립하는 판촉도 유력하다

태평양주보

하와이
호놀루루
부기니스튜리드
전화 89849
주필 최선주
사장 최빅령

Published
by
Korean Dongji Hoi
931 N. King Street
Honolulu, Hawaii, T. H.
P. O. Box 1573
Phone 58949
B. Y. Choy, Mgr.
un Choo Choi, Editor

양진영의
장례에 영향
이 그는 목적은 소
자의 비약적인 발

라도 우도락은 서속 六
五十 마일 사제성거리 빅 마
이름에 달하는 중성호 신
벼랑이다
대만에 이미 도착?

을 보여준 것이라니 이래 하루에 하루마다 그를 향해 '나이가 먹어'라는 자주 험담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금자주 하는 나라도 충분히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아파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더욱 친밀한 합하여 우리나라 산수장을 치밥장을 통해 저녁장을 먹우리나라의 저녁장을 루방비 고요히 세우도록 모든 사람들이 더욱 험담하는 나가기를 바탕으로 이 바탕으로 주제에 험담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처져하는 는 것이다.
(국제통신)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Dr. Michael J. Hwang at (319) 356-4000 or via email at mhwang@uiowa.edu.

一九五七年五月十七日

여기 중의 **7국회 의원**의
활동을 각각
인사자 바운
성명은 다음과 같다.
박만수 의원 (자우다이)
저정경자 의원 (자우다이)
한희석 의원 (자우다이)
남기현 의원 (우수자)
안동준 의원 (자우다이)
국방위원장
박세경 의원 (자우다이)
사법위원장
송아우 의원 (우수자)
조재천 의원 (미주 태국)
현석호 의원 (미주 태국)
스자원 총무기증을 본부로
히정도의원으로의
한 사람입니다.
온 도당회 중앙부에서
당을 떠나는 일입니다.
「**조국** 노동당을 위하여
장세워온 두고 투철한
신인 선두를 향하여
리에 보시고 인사 보고 드립니다.
가게 되니 천민 우강이나
귀국도중이나 후진은 선거
회에 속 시기에는 서서 작
전에 여러분의 뵙우고
드리고 싶다」

(二) 페지 7단에 서는 「여기에는 보는 사람은 우려의 이 사제로 을 위하여 한 번에 암송하고자 하니 우호관제 조속 수립을 촉구」(『고국통일』)라고 있다. 이는 「여기에는 보는 사람은 우려의 이 사제로 을 위하여 한 번에 암송하고자 하니 우호관제 조속 수립을 촉구」(『고국통일』)라고 있다. 이는 「여기에는 보는 사람은 우려의 이 사제로 을 위하여 한 번에 암송하고자 하니 우호관제 조속 수립을 촉구」(『고국통일』)라고 있다.

감
나
무

교회 모임

호학 한인 기독교회
May 19 주일례비

४५८

장·十五절
교회소식
와하이아 교회에서는 오
는주일 아침은 특히
국방의 주일로 치러
미례에서 교이가 정예에
서 군분에 주종사하는 천
내를 위한 특별기도
기도와 위령을 보낸다.
이라 한다.

○ 와하야와 지방한 소식
○ :: 와하야와 지방한
이제승금 이세도보서 조
직원 헤국 클리미아에서
는 지난 5월로 1일에
서소thon 마리수 대회
와스든 학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과 춤
연예회가 이어서 한복 청정
네과 하와이 청년들의
제의를 교환한 바
서盛大된다
○ :: 와하야와 부인 구제
회의 휴지
와하야와 지방한 부인 구
제회에서는 쥐국 도중
화와이에 유학하는 부산

한 일 의상가로 든 길
필립조의 꽃상점
호도를 둘 누아누 거리 그로스
정방전화
사구전화
전화번호
자는 티셔츠와
인인 부인의 아들
이오 해드림 일로 핏
페란 헤리 워터 들
온 제 동 기 유통시다
사구전화 는
토
작히려고
침입하는
가장 각석 선물을 순니미차는 데로 수송을 하여
온는데 특히히 우리 한인점포군거 큰 품 가도
첨문에는 품 가로 드릴선판안나 나라 체의를
제작하
필립조
주점

본 장의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동지회호
상우회와 같은 한인계에
가장 특별한 「써—비쓰
풀 전례적 와스미 드한 이
압호도 그림 허입니다.
써—비쓰 라면 주야의 풍
우를 볼 애하고 또는 워든
을 광제 처안로 가산둔히 재
반 수수길을 허보하는 거이
간마자 와사가 제나야 할
경우에 차이라 힘도 할 수
있고는 데리고는 바에 앉
이와같은는 애는 바에 앉
서 부리 사부상 체념를 벗
여온 「선흐락」 장의소를



제주 조필립

필립조니 곤다워

五〇一九七

누아누기 텁텁공원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